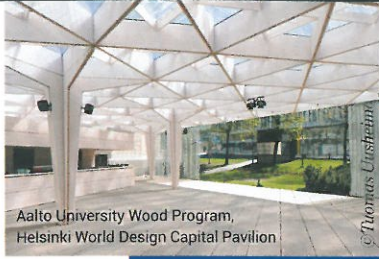


Nordic Passion

지금 한국에서는 공공 건축과 디자인 혁신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거세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의 건축과 디자인을 담은 전시 <NORDIC PASSION: 북유럽 건축과 디자인>을 개최한다. 단순한 형태와 기능을 강조한 오늘날의 북유럽 건축과 디자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북유럽의 각 교육기관과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다각도로 참여한다. 학교 건축, 나무 건축, 공공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다양한 건축물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핀란드 건축 박물관과 협력해 현지의 나무 건축 디자인을 선보이고, 노르웨이의 건축가들이 힘을 모아 현지의 학교 건축 일부를 1:1 크기로 소개한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10월 22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문의 02-2124-8928



Aalto University Wood Program, Helsinki World Design Capital Pavilion

©Thomas Unstehim



Reiulf Ramstad, Kindergarten Fagerborg

©Thomas Unstehim



배병우, PL1A-041A,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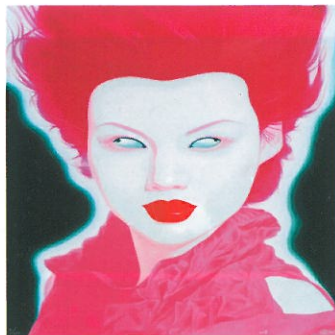
배병우, SEA1A-085H, 2012

배병우 개인전

일순간 먹먹해진다. 배병우의 사진 앞에 서면 여러 감정이 기묘하게 뒤엉켜 좀처럼 쉽게 눈을 땔 수 없다. 한국의 풍경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내는 사진작가 배병우가 바람과 풍경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2012년 파리과 취리히, 베를린 등 유럽 각지에서 소개되어 극찬을 받았던 시리즈 'Windscape'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다. 소나무를 찾아다니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전국의 바다를 누벼왔다는 배병우. 바람이 일렁거리는 산과 바다를 담은 이번 시리즈는 디지털 인화가 아닌 전통적인 흑백 인화 방식으로 선보여 그의 작품 세계를 보다 또렷이 감상할 수 있다. 사진 속에 담긴 배병우의 관조적인 시선은 대상이 가진 고유한 움직임을 포착해 자연의 근원적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생명력을 오롯이 전한다. 가나아트센터에서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문의 02-720-1020

평정지에 개인전

중국 미술은 여전히 뜨겁다. 그중에서도 평정지에는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이라 불리는 팡리쥘, 장샤오강, 위예민쥘, 왕광이와 어개를 나란히 하고 있는 작가다. 찰스 사치와 같은 유명 컬렉터가 중국 차세대 작가들의 전시를 열었을 당시, 평정지의 작품을 내걸었을 정도로 그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중국 작가이기도 하다. 초점 없는 여인의 눈동자로 상징되는 평정지에의 연작들. 과연 그가 던지려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평정지에는 여인의 눈동자 위치를 어색하게 바꿈으로써 트렌드만을 광적으로 좇는 중국인에게 정면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시니컬 리얼리즘'으로 대변되는 중국 현대미술의 중심에 강렬하게 서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 10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문의 064-710-7801



Feng Zhengjie, Chinese Portrait no.38, 2008



이광호, Cactus No.35, 2009

사적 공간에 거주하기

예술적 의미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한다. 김남표, 이광호, 이세현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 <사적 공간에 거주하기>가 말하고 있는 공간은 작가들의 개별적 경험으로 체화된 고유의 개념적 장소를 말한다. 이들은 삶에 내재된 보편적 공간을 개별적인 예술 세계로 구축하여 차별화된 사적 공간을 제시한다. 세 작가는 유토피아적 환상이나 상상의 세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공간을 재현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존재 방식을 보여준다. 이틀리에 아키에서 9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문의 070-4402-7710

